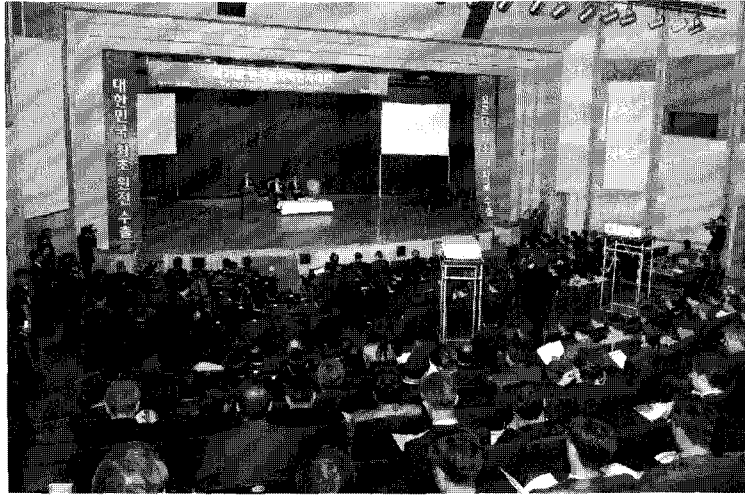


## 제25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 '원자력의 이용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주제 국내외 원자력전문가 600여명 참가 성황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김쌍수)와 한국원자력학회(회장 박군철)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5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The 25th KAIF/KNS Annual Conference)가 4월 14일(수)부터 4월 16일(금)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COEX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원자력계의 최대 행사인 이번 연차대회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UAE, 중국, 일본, WNA, IAEA 등 8개국과 2개 국제기구에서 약 600여명의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원자력의 이용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International Partnership in Advancing the Uses of Nuclear Energy)」이라는 대회 주제 아래 원자력의 현안 문제와 전망에 대한 강연과 논문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4월 15일에 열린 개회세션에서 구한모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에 이어 UAE 상용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원자력을 도입한 지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원자력시스템을 일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값진 성과는 그동안 원전 기술 자립을 위해 땀흘려온 원자력계와 정부의 혼연일체된 노력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원자력 기술 자립의 성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 및 보유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 강국에서 원자력 최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축사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전성과 신뢰성,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비확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원자력 르네상스 바람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학계, 연구계와 산업계가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군철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 세계 원자력계의 지도자와 석학을 비롯하여 국내

의 원자력계 전문가들께서 많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원자력계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부응하여 국가 녹색 성장의 견인차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열린 특별강연에서는「한국의 원자력산업 현황과 전망」(박현택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본부장), 「중국의 원자력개발을 위한 기회와 도전」(Yang Qi 중국핵능행업협회 부회장), 「일본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원자력 이용과 중요 과제」(Akira Omoto 일본원자력위원회 위원), 「원자력의 지속적인 개발 :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의 역할」(강창순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회장) 등이 발표되었다.

오후에 열린 패널세션에서는 ‘원자력의 이용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주제로 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개발본부장, Dominique Mockly 프랑스 ARVA 수석부사장, Serge Gorlin 세계원자력협회(WNA) 애널리스트의 기조강연에 이어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윤세준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사무국장, Christer Viktorsson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UAE) 원자력규제기관(FANR) 부청장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4월 16일에 열린 기술세션은 「원전 운영 및 유지 보수», 「원전 설계, 제작 및 건설», 「원자력 안전 및 규제», 「핵연료주기», 「원자력 미래 기술»,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51편의 기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연차대회와 병행하여 열린 「2010 원자력산업전시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두산중공업(주), (주)이지테크, PICASSO, Westinghouse, AREVA 등 12개 국내외 원자력 관련 회사가 참여하여 회사 현황과 연구 개발 성과를 소개하였다.

## 제17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시상식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제2발전소 대상 수상

제17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시상식이 4월 14일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제25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식 전 행사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제2발전소가 수상하였으며, 금상(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은 박상원 한전원자력연료(주) 노심설계처 책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보협력부가 수상하였다. 은상(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상)은 김용규 두산중공업(주) 원자로설계팀 부장, 삼성물산(주) 신월성원전 1,2호기 현장, 조직래 한국전력기술(주) 배관기술처 처장, 진행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월성건설소 부소장, 한전원자력연료(주) 핵연료서비스팀이 받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산업계 발전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공로상에는 한영성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장, 장기욱 전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박상기 전 한국전력기술(주) 사장이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원자력기술상 시상과 함께 진행된 제10회 원자력국제협력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한국원자력기술기업협회 서호준 대표, 주한 미국대사관 제임스 윌러 과학관, 주한 인도대사관 라자세카 과학관, 한국원자력연구원 홍성완 책임연구원,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최재은 주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재웅 선임행정원, 한국연구재단 장선영 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위성도 차장, 두산중공업 김춘영 부장, 한국전력공사 조성민 차장이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한국원자력기술상 수상자 주요 공적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대상(국무총리상)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 제2발전소(단체상)

- 고리 3호기가 1985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5년 동안 무고장 안전 운전(OCTF) 달성 13회 및 이용률 세계 1위 달성 9회 등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 구현에 기여
- 고리 4호기는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27일까지 515일 동안 국내 최장 한주기 무정지 안전 운전 달성한데에 크게 기여

## 금상(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 박상원 한전원자력연료(주) 노심설계처 책임연구원

- 핵설계 미정부 제한코드의 사용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코드 체계 개발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
- 핵설계 분야뿐만 아니라 과도 해석 미정부 제한코드인 STRIKIN-II와 HERMITE 코드를 CESEC/TWINKLE /FACTRAN/CETOP 코드로 대체하는 코드 개발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과제에 성공적 기여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보협력부(단체상)

-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활동 및 원자력산업의 안전성 제고 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국가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인 원자력의 국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사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원자력산업 관련 핵심 기술의 국산화 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등의 국민 이해 증진 사업에 공헌

## 은상(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상)

### 김용규 두산중공업(주) 원자로설계팀 부장

제어봉 구동장치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해외 원전시장 진출, 일체형 원자로 헤드 상부 구조물의 초도품 설계/제작, 교체형 원자로의 설계/제작 등 원전 주요 기기의 국산화, 원전 기술 자립, 원자력 안전 증진 및 원전 산업 발전에 기여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신월성1, 2호기현장(단체상)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 격납 첩판 시공 방법을 기존의 2단 모듈 인양에서 3단 인양 공법으로 개선,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격납 첩판 3단 모듈 시공에 성공하여 완벽한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 용접물질 제고 및 시공성 향상에 기여

## 조직래 한국전력기술(주) 배관기술처 처장

27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원전 배관 계통 안전성 향상 및 설계 기술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개선형 원전인 신고리 1,2호기에 국내 최초로 3차원 모델을 이용한 설계 기법을 적용,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기술력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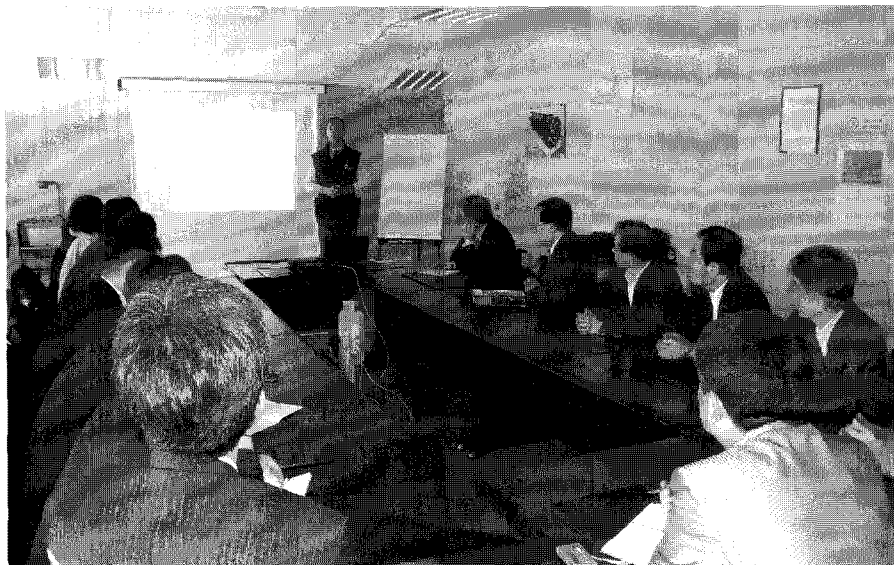
## 진형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월성건설소 부소장

신월성 1,2호기 건설 현장의 철저한 시공 관리로 주공정인 1호기 원자로 설치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쳐 공기 준수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약 107억원의 공사비 절감에 기여

## 한전원자력연료(주) 핵연료서비스팀(단체상)

해외에 의존하던 사용후핵연료의 수리 기술과 결함 원인 규명 정밀 검사 기술을 국산화하여 핵연료의 품질 향상과 원전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고, ACE7과 PLUS7 등 국산 개량 연료 기술 자립을 통한 수출선도형 핵연료 개발 기반 구축에 기여

## 제6회 한·불 원자력산업 연차세미나 개최 프랑스 파리, 프랑스 원자력 시설 시찰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FAF)가 공동 주최한 제6회 한·불 원자력산업 연차세미나(The 6th KAIF/FAF Annual Seminar on Nuclear Industry)가 5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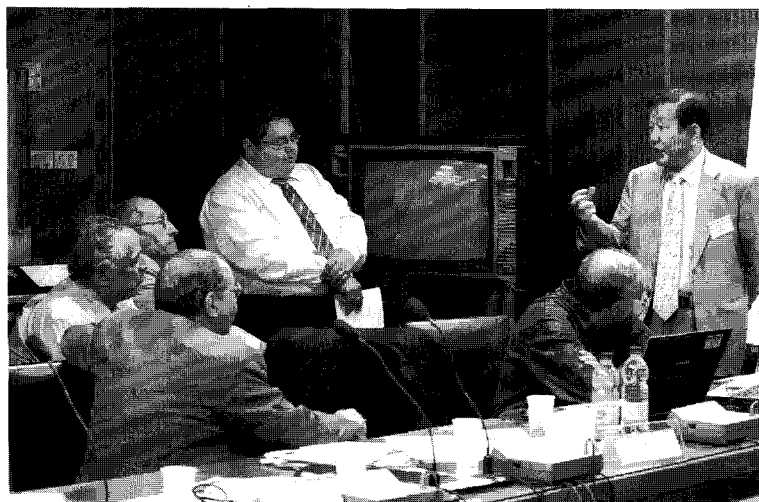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에 위치한 국제철도연맹(UIC) 본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연차세미나에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원산의 구한모 상근부회장(대표단장)을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두산중공업(주) 등 관련 기관에서 총 12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측에서 4편, 프랑스측에서 5편 등 총 9편의 기술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이번 연차세미나의 일환으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산업 시찰도 시행되었는데 한국 참가자들은 ANDRA가 운영하고 있는 「뷰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용지 지하연구소와 「로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AREVA가 운영하고 있는 Mecagest 원자력공장, 노르망디에 위치한「라하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 스터디 후 현지 전문가들과의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류하였다.

이번 한·불 원자력산업연차세미나와 산업시찰은 세계 최고 수준인 프랑스의 원자력기술의 원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아울러 한·불 원자력산업계간의 정보 교류 및 기술 협력을 통한 우호증진의 창구 역할을 다하였다.

차기 한·4불 원자력산업 연차세미나는 내년 10월경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구한모 상근부회장 IAEA 워크숍 초청 강의 이집트 카이로, 원자력 분야 고위 인력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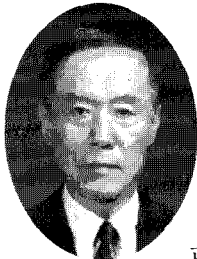
구한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워크숍에 초청 강사로 초빙되어 일주일간 강의 활동을 수행했다.

4월 17일~23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Developing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 Issue 3: Management' 를 주제로 이집트의 고위급 원자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프로그램으로, 구한모 상근부회장은 「원전 사업 관리」, 「사업 관리 팀

구성」, 「사업 계획」, 「한국 원전 자립화 경험」, 「세계 원전 동향과 연료 전망」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집트 원자력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Dr. Yassin IBRAHIM( Chairman of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차관급)과의 면담을 포함하여 향후 이집트 원전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이집트 고위급들에게 한국의 원자력 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원자력회관’ 건립 기금 회사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장



한영성 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장은 지난 4월에 열린 제25회 원자력연차대회에서 원자력공로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일백만원을 ‘원자력회관’ 건립 기금으로 회사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이 한국원산 홈페이지를 통해 김쌍수 한국원산 회장 앞으로 보낸 메시지 전문이다.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코리아원자력, 국제 원자력사에 새 장을 연 우립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거의 무에서 당당한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원자력에 몸담아 뛰었던 ‘코리아 원자력 맨’ 그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원자력회관’ 하나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원자력산업회의에서 분에 넘치는 큰 상을 본인에게 내렸습니다.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부상으로 받은 귀한 상금을 그냥 써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그것을 여기 담아 보내드리니 앞으로 원자력회관 건립에 벽돌 몇 개라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원산은 한 위원장이 회사한 ‘원자력회관’ 건립 기금에 대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18개국 재외동포 기자들에게 원자력 홍보 강연 ‘2010 재외동포 기자대회’

한국원산 이영일 전문위원은 4월 20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 재외동포 기자대회에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방향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번 강연은 최근 UAE 원전 수출로 한국이 세계 각국에 알려진 가운데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1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을 자세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석 기자들의 열띤 질의와 응답을 통해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한 뜻깊은 학습장이 되었다.

한국기자협회는 재외동포 기자 언론 네트워크 형성과 국내외 동포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전 세계 재외동포 언론인들을 초청해 재외동포 기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